

學問의 均衡 발전을 위한 새로운 視角

張 日 祚

(한신大 哲學科)

1. 問題狀況

현실정치에게 희망적인 교육정책을 기대한다는 것은 비관적이라고 본다. 현실정치는 그들을 밀고 있는 국민대중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고, 국민대중은 오늘날 우리가 비관적이라고 보고 있는 사회와 역사의 總體的 否定性을 생산하고 또 확대재생산하는 사회와 역사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사회의 현실정치는 그것을 결정하는 국민대중의 지지기반 위에서 존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대중의 성격이 그들의 현실정치를 결정한다는 불가분의 상호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호관계 때문에 현실정치는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대중의 요구를 확대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기는 쉬워도, 결코 그것을 축소개혁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비민주독재로 낙인찍힐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대중의 삶의 욕망은 '보다 더 많이'를 향해서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끝없이 팽창하는 욕망을 현실정치는 언제나 확대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세계가 하나같이 같은 보조를 취하고 있

다. 21세기·첨단과학기술·고도산업사회·경제선진국 따위와 같은 구호가 오늘날 국내외는 물론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물결이다. 이 물결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전쟁'이라는 말로써 이러한 상황의 긴장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오늘날 세계는 무엇보다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우리 인간이 지불하는 대가로서 오늘날 세계가 가장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價値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들의 가치는 오늘날 社會·歷史화된 物質로서의 經濟(商品)라는 것이다. 경제라는 物質이 目的이고, 이것을 추구하기 위한 탁월한 手段이 科學技術이다. 이로써 오늘날 우리 세계가 직면한 문제상황은 스스로 명백해진다. 오늘날 세계는 經濟的 物質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그것을 얻는 가장 탁월한 수단으로서 道具·機能的 技術科學을 중요시한다는 말로써 요약된다.

이러한 문제상황은 오늘날 세계적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결코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상황은 또한 오늘날 전세계의 大學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스스로 결정하는 셈이다. 경제는 우리 인간이 사는 데 없지 못할 사회·역사화된 물질로서, 바로 社會科學的 理

論과 實踐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더 나아가서 사회과학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물질을 최고가치로 추구하는 社會·歷史的 物質主義로 인하여 인간존재도 物質主義的인 빛으로 바라봄으로써 어느새 人文科學조차도 물질적 현실주의 관점 안에 휘말려 들어갔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도 무슨 초월적 본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생물체로서 社會·歷史的 存在라고 보는 까닭에 인문과학도 이러한 사회과학적 학문이론 안에 휘말린 것이다. 그래서 정신적 인간이 물질적 사회 속으로 해체되는 것을 의미하는 人文·社會科學이라고 부른다. 더 정확히 말하면 社會的 人間科學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결국 경제를 둘러싼 經濟的 社會科學이 오늘날 세계의 中心科學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목적을 위한 사회과학 이외에 이것을 추구하는 수단의 과학으로서 도구·기능적 技術科學이 있다. 이러한 기술과학은 경제적 물질을 얻는 자원이 自然이기 때문에 자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배·이용할 수 있는 도구·기능적 기술과학이다. 우리는 그것을 自然科學이라고 통칭한다.

이로써 오늘날 우리 인간과 세계는 사회·역사적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경제라는 물질을 얻는 經濟科學으로서의 社會科學과, 경제적 물질의 원료와 그것을 얻는 데 필요한 수단과 기술로서의 自然科學이라는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두 가지 學問理論을 갖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 우리 세계와 인류가 직면한 운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상황은 매우 비관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앞으로 우리 인류(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류 세계의 총체적 운명의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大學이고, 대학이 인식하는 이러한 진리를 국민대중과 세계인류를 위하여 역사현실에서 정직하게 실천하는 것이 現實政治이다. 그런데 대학의 이러한 진리인식에 대해 현실정치가 부패한 대중성에 영합한 나머지 비판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대학이 존재(세계)의 全體性과 木質을 추구하는 진리인식에서 벗어나

존재의 파편들에 불과한 것들만을 다루는 個別科學이나 事實科學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한층 더 비관적인 문제상황이다.

2. 社會科學과 自然科學의 危機

인간의 사회·역사적 삶에 있어서의 경제적 물질에 관한 사회과학과 그러한 경제적 물질의 원료로서의 자연적 물질에 관한 자연과학은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위기란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인간존재의 倫理的 破綻이고, 자연과학에 있어서는 生態的 破綻이다. 이러한 위기를 만드는 자도 인간이고, 이러한 위기를 당하는 자도 인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존재는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의 學的 軸點이다. 그런데 바로 이 인간주체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통하여 거둔 성과가 이렇게 위기를 초래하는 경제적 물질주의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연과학주의라는 데 이르러 인간은 그 거둔 성과물에 의해서 오히려 위험에 처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경제적 물질주의는 인간을 物化함으로써 마침내 인간의 자기정체성을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物化는 인간을 感覺的 存在로 보는 데 기인하고, 인간을 감각적 존재로 보는 것은 인간이 理性的 存在라는 것을 부정하는 인간관에서 오는 것이다. 물론 인간관의 이러한 세계사적 전환의 밑바닥에는 수백 년간의 인간의 사회·역사적 삶의 피나는 실존적 투쟁의 고뇌가 깊고 두껍게 쌓여 있다. 삶의 실존적 고뇌가 삶의 이념과 방법을 변화시킨다. 인간을 이성이 아니고 감성이라고 볼 때, 감각적 인간은 物質로 지향한다. 인간의 감각과 감성은 언제나 감각에 직접 와서 닿는 물질적이고 객관적인 대상성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인간존재의 이러한 감각화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 小宇宙인 인간에서 영혼을 부정하고 육체만을 인간의 실체로 보는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적 인간학과 그러한 감각적 인간학을 사회·역사적 차원으로 전환·확대시킨 맑스의 유물론에서 극명하게 표현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감각적 인간이 물질적 대상성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물질을 존재의 실

체로 볼 뿐만 아니라 그의 곁에 있는 인간도 그렇게 본다. 여기에 [사물일반의 물화는 물론 인간의 물화현상이 나타난다. 바로 이것이 맑스적인 의미의, 商品의 物神的 性格과 그 秘密이다(Das Kapital I, Erster Abschnitt, 4). 그러나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 그가 이렇게 물화되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러한 자기물화 거부감은 인간이 인간을 그의 육체적 감각의 물질적 대상으로만 所有할 수 없는 그 이상의 超越的 存在라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초월적 存在性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게 감각적 대상으로 소유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精神的 靈魂이다. 정신적 영혼은 우리들의 정신화를 통한 정신적 영혼으로서 함께 만날 수는 있으나, 물질적 육체처럼 하나의 대상적 객체로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영혼은 시·공을 뛰어넘어 있는 普遍的 主體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들의 감각으로써 대상적으로 소유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물질주의는 인간의 이러한 정신적 영혼조차 물화함으로써 인간의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倫理的 破綻을 일반화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正體性의 위기다.

자연과학주의는 바로 인간의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육체의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다 주고 있다. 자연과학이 인간의 사회·역사과정에서 인간을 위해서 공헌한 바를 낮게 평가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여기서는 자연과학의 그 많은 공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현실적 해독을 말하는 것이며, 많은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에게 끼치는 치명적인 해독이 문제라는 것이다. 자연과학의 價值中立의 성격은 그것의 道具·機能的 本質과도 무관하지 않다. 자연과학의 도구·기능적 성격은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동적이고 맹목적으로 奉仕하는 까닭에 神을 부정하고 그 대신 자신이 神으로 된 肉體의 人間이 그의 생물학적 육체가 사는 만큼의 現世의 삶을 위한 유일한 依支處인 物質的 自然의 征服(기술과학)과 擄取(응용과학)를 위한 도구의 과학이다.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연의 세계

를 정복하고 착취한 역사의 종국은 生態的 危機라는 사태에 직면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과 그 충족 사이에 윤리적 균형이 깨어졌다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되면 인간은 그 生存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에 있어서 경제적 물질주의는 인간의 물화로 인한 인간의 사회적 정체성을 파괴하는 윤리적 위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물질주의를 뒷받침하려는 자연과학은 그 가치중립적 도구·기능성 때문에 결국 자연의 고갈과 공해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써 인간의 생물학적 자기파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회과학이 초래한 인간의 사회적 정체성(윤리)의 파괴는 그것이 육체적 감각이 대상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인간의 정신적 존재까지를 물화하는 데 기인하였기로 득점소유에 대해서는 소유공동주의(사회주의)로써, 인간정신의 물화에 대해서는 휴머니즘으로써 그 대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사회과학을 위해 도구·기능적으로 봉사한 자연과학이 초래한 인간의 생물학적 자기(물리)파괴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과학으로써 그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대안이 결코 성공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것이 성공하기에는 인간이 오늘날 이미 물질주의와 그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의 과학주의에서 헤어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깊이 빠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보는 점에서 나의 관점은 매우 비관적이다. 이러한 관점의 끝에는 감각에 의해서 지배되는 동물적 인간과 그 反理性的 성격으로 해서 인간은 이미 神을 否定했고(무신론), 앞으로는 神 없는 육체적 자기와 그의 의지적인 自然까지를 스스로 파괴하는 과극적 결말이 있을 뿐이지만(허무주의), 그러나 아직 그날이 오기까지 남아있는 시간에 全地球的인 이러한 비극적 인간의 운명을 돌리 놓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3. 危機는 어디서 오는가

우선 오늘 우리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모든 말과 행동

은 이 사실이 분명해지는 데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명백히 이러한 위기가 비관적이라고 하리만큼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러한 전체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나는 앞에서 사회과학이 경제적 물질주의에 기울어지고, 자연과학이 사회과학의 그러한 목적에 맹목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생물학적 인간의 자기(육체)파괴라는 한계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사회과학의 그러한 물질주의는 물질의 독점화와 인간의 물화현상을 초래하고, 그러한 현상에 맹목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오늘의 자연과학이며, 그러한 부정적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인간과 사물을 다같이 物化하고, 그러한 물화를 위해 맹목적으로 봉사하는 인간의 感覺主義라고 했다. 감각주의라기보다는 감각주의적으로 물질화한 정신이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

감각이란 인간의 육체에 가까이 붙어 있는 정신이다. 따라서 감각은 인간의 육체가 생물학적으로 거기에 통일되어 있는 自然에 근접하고, 자연은 다시 物質一般으로까지 돌아간다. 그러므로 감각적 인간은 자연과 물질로 기울어지는 성격을 갖는다. 인간이 감각, 감각이 자연, 자연이 물질로 환원되는 것은 그가 理性的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神을 否定하고, 신을 부정함으로써 인간 자신이 神으로 되고, 신으로 된 인간의 실체가 곧 육체적 인간이라는 피나는 사회·역사적 삶의 투쟁과정을 통한 자기긍정의 感覺的 事實性에 기초해 있다.

인간은 본래 육체와 영혼의 兩面性을 갖고 있다는 것이 동서고금 인간에 대한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수천 년간의 삶의 과정에서 神의 명령에 대한 신앙적 복종이 직접적으로는 인간의 감각적 즐거움과 행복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사실에 눈뜨고 나서 그 절대명령적인 신의 강요와 인간존재 사이에는 억압과 해방이라는 生死를 건 피나는 투쟁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바로 이 쓰라린 현실적인 삶의 체험 과정에서 인간은 신을 향한 이성적 정신을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포기하고, 오직 依支處는 신이 아니라 자기자신(몸뚱이)밖에 없다는 냉혹한 事實에 눈뜨게 되었다(리얼리즘). 그리하여

마침내 인간은 그의 기나긴 쓰라린 삶의 과정의 經驗을 통해서 神은 한낱 거짓된 허상이라는 역사적 사실인식에 이르고, 신을 믿는 정신적 이성주의로부터 이 땅과 자연과 세계를 믿는 물질·감각적 현실주의로 넘어갔다. 인간의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의 밑바닥에는 神을 향하는 이성주의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사회·역사적 현실로부터 사회·역사주의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현실로의 이행도 함께 동반되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신으로부터 인간의 감각적 사회·역사현실로의 전환은 단순한 논리적 이념의 전환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현실의 전환을 함께 의미하는 것이다.

아주 잘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인간이 그를 규제하던 신을 떠나서 자유해방적으로 인간 그 자신과 자연으로 전환한 것은 좋다. 신으로부터 인간과 자연으로 넘어가는 일이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인간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했던 존재운명적인 선택의 길을 따라왔을 뿐이다. 그러한 새로운 길의 선택은 언제나 인간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 주었다. 그러므로 그 새로운 길의 선택에서 아직도 여지가 있는 한에서만 인간은 길을 선택했다.

사회과학의 물질적 경제주의는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의 한계에 직면하여 소유평등주의가 새로운 데안으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물질적 가치 때문에 인간존재까지를 物化하는 모순은 인간존재를 파괴하는 위기로서 인간을 物質 아닌 精神으로 보는 새로운 全人의 人間學을 가능케 했다. 인간을 물질로 보는 것은 육체적 감각주의로 기울어졌기 때문인데 정신적 이성주의로 넘어감으로써 인간을 정신적 존재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인간학적 전환을 이룩하는 데는 육체적 감각주의에 기초한 사회과학의 물질주의가 인간존재까지를 物化함으로써 인간이 자기정체를 파괴한다는 감각적인 사실이 역사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 누가 시킨다고 하고, 말린다고 될 일인가? 神도 인간에게 부정되는 판국이 아닌가? 神도 人間도 自然도 모두 物質的으로 事物化된 우리 시대에 오직 그의 감각에 限

界狀況으로 와닿는 事實만이 비로소 인간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신 없는 육체적·감각적 인간의 사회성이 인간 자신을 파괴하는 反社會性으로 감각에 다가올 때, 비로소 그러한 사회과학은 피할 수 없이 革命的 實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인간의 생물학적 존재(육체)를 파괴하는 자연과학도 인간의 生存이 위협받을 때, 비로소 피할 수 없이 새로운 인간주의적 과학으로 전환한다. 인간의 문화적 정체성을 파괴하는 사회적 한계점(윤리성 파괴)과 자연적 정체성을 파괴하는 생물학적 한계점(생태계 파괴)이 인간으로 하여금 육체적 감각주의로부터 정신적 이성주의로 전환하도록 하는 잣대가 된다. 그래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위기가 유래하는 인간의 육체적 감각주의가 문화·자연적 차원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감각적 잣대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 감각적 육체의 生物學的 生存이라는 잣대에 이날까지 우리 인간이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논리적 이념과 그 전개로서의 역사적 현실의 試金石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4. 正體感의 試金石—인간의 全人性

서양 속담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동서고금 인간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터득된 지혜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격언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함의되어 있다. 하나는 ‘끝’이라는 문제인데, 모든 끝은 처음(원인)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처음이 좋지 않은 끝이 좋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있을 수 없고, 있다면 우리가 모르게 처음이 좋았거나 아니면 결코 일반화될 수 없는 우연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는 원리에 입각한 것이지 결코 우연에 근거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좋은 끝은 처음부터 좋은 시작과 통일된 사태의 산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는 좋다는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옛날과 지금이 많이 다르고, 그것을 검증하는 시간도 옛날보다 지금은 매우 짧아졌다는 것이다. 오늘날은 모든 善(利益)이 物質的·自己中心的·

即刻的이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사회과학이 물질적 경제중심주의로 되고, 자연과학이 이러한 사회과학의 目的을 성취하는 것을 目標로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小宇宙인 인간존재가 理性的으로 思惟하는 인간(Vita contemplativa)에서 感覺的 肉體로써 勞動하는 인간(Vita activa)으로 사회·역사적으로 전환한 사태와 관련되어 있다(H. Arendt, *Vita activa*, Stuttgart, 1960). 감각적 육체로써 노동하는 인간의 사회·역사적 승리라는 사태의 결과가 물질적 경제중심주의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기능적 기술과학의 발전을 지향하고, 이러한 사회·자연과학의 결과가 오늘날 神과 人間과 自然의 統一에서 기대되는 全人性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결과가 좋지 않다는 총체적 느낌이 우리 인간에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자기존재에 대한 正體感의 위기를 존재론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정체감의 위기는 바로 正體性의 위기에서 오고, 정체성의 위기는 인간이 오늘날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물질이 풍요롭지 않거나 이러한 물질의 풍요를 생산하는 도구·기능적 기술과학이 덜 발달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다. 사회과학적으로는 풍요한 물질이 사회적으로 정의롭게 분배되지 않음으로써(독점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비판), 인간을 물질소유관계에서 疎外시킬 뿐만 아니라 물질적 경제중심주의 가치관이 인간존재조차도 物化하는 데 이르고, 자연과학적으로는 이러한 사회과학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술과학이 오늘날 인간의 과도한 물질적 欲望을 充足시키려고 자연을 과도하게 정복한 나머지 인간의 生物學的 生存이 불가능하리만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자원고갈, 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가져다 주는 끝(성과)에 대한 총체적 느낌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성과가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불길할 정도로 좋지 않게 直感되는 것이 문제다.

이것은 인간존재의 정체성 위기와 파괴에서 오는 느낌으로서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인간이

점차 패배하고, 그 대신 육체적 노동을 하는 감각적 인간이 마침내 승리한 상태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된 사태가 불길하고 비관적인 느낌을 가져다 준다는 直感 자체가 이러한 인간이 거둔 그동안의 총체적 업적에 대한 자연스러운 총체적 價値判斷이거니와, 이러한 美學的 가치 판단은 그러한 업적을 가져온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감각적 인간이, 인간이 도달해야 할 그 본래의 모습도 아니거니와 이룩해야 할 完全한 像도 아니라는 사실을 운연중 스스로 자연스럽게 폭로하는 것이라고 洞察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통찰에서 우리는 인간의 삶의 총체적 과정에서 이룩하는 총체적 업적에 대한 총체적 느낌으로써 인간 그 자신의 正體性和 그 正體感을 인류세계 文明批判의 尺度로 얻게 되고, 이 척도가 가리키는 눈금에서 우리는 全人性(totus homo)이라는 매우 추상적이지만 그러나 매우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作業假說의 人間像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혼과 육체의 통일로서의 인간은 神과 自然과의 통일에서 그 全人性이 얻어지며, 그러한 인간의 正體感은 그의 全人性의 試金石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무엇이며,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없다. 그러나 위대한 東西古今의 스승들과 그들이 남긴 古典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존재와 그 운명에 대한 이리 저리한 見解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가 世界宗教라고 부르는 위대한 경전들(우파니샤드, 바가비드 기타, 성서, 코란, 역경, 도덕경)에서 말하는 인간존재와 그 운명은 참으로 오늘날 現世에서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연에서 물질을 추구하는 감각적 인간상과는 거리가 멀다. 너무나도 거리가 먼 나머지 아주 빛나겠다고 말해야 더 옳겠다.

나는 동·서양의 위대한 스승들과 그들이 남긴 위대한 고전, 그리고 세계종교의 위대한 경전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오늘날 우리 현실적 인간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고전들의 통찰이 眞理이고, 그 진리에서 현실적 인간이 빛나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우주와 통일된 인간의 진리가 올바른 것이고, 그 진리가 이미 위대한

스승들에 의해서 통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망각으로써 진리에서 일탈한 잘못이 모면될 수 있으면 좋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 진리에서 벗어난 우리가 진리를 범한 값으로 파국의 한계상황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왜 그런가? 우리 소우주로서의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양면성이 대우주의 물질(자연)과 정신(신)의 양면성과 존재론적으로 統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이 신은 죽이고(무신론), 자연은 파괴함으로써 이러한 우주적 존재통일성을 파괴했다. 인간의 운명은 그가 육체(물질)이거나 영혼(정신)이거나 간에 인간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존재론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대우주와의 辨證法的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존재와 그 운명은 그를 둘러싼 대우주의 정신(신)과 물질(자연)에 상응하는 육체와 영혼의 兩極 사이를 번증법적으로 왕래하면서 운동하는 全人的 상황에 놓여 있다.

인간존재의 이러한 양극적(진인적) 논리구조는 그것이 대우주의 물질(자연)과 정신(신)과의 本質關係에 기초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인간 그 자신의 역사적 현실을 時·空間 안에서 단계적으로 전개해 가는 까닭에 현실적 인간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좀처럼 자기자신의 그러한 全人的 存在(본질)에 스스로 완전하게 일치(도달)하기는 어려우나, 극히 소수의 탁월한 인간들과 극히 짧은 太平聖代에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自己同一性(正體性)의 성취가 가능하려면 언제나 우리는 개인이건 집단이건 육체(물질)와 영혼(정신)이 中和의으로 統一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지(차원)를 우리는 神과 人間과 自然의 辨證法的 統一이라고 부른다.

5. 全人性을 향한 世界觀의 革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러한 中和的 統一의 尺度로서의 人間이 그 全人性을 상실했다는 正體感의 危機가 이미 적신호를 울린 지 오래다. 인간이 너무 육체(물질·자연)로 기울어졌다는 태서 오는 赤信號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연을 정복·지배하는 도구체제로

서의 技術科學(自然科學)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아직도 우리 인간이 자기존재를 육체(물질·자연)로 이해하고, 그러한 육체적 인간의 依支處로서 자연(물질)을 物神으로 꼽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문제다. 그리고 여기서 해방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物質的 現實主義의 世界觀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感覺的으로 肉體化된 인간에서 理性的으로 精神化된 인간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것은 인간이 정신적으로 거듭나는 人間革命이다. 이 혁명은 총칼로 하는 物理的인 것이 아니고, 인간이 神을 지향하는 精神的 깨달음이다. 그래서 철든 인간(Homo noeticus)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느 한 민족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전체의 문제(globalistics)이며, 오늘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物質的 現實主義 世界觀을 革命하는 문제다. 그래야 神과 自然과 통일된 全人的 인간, 즉 本能的 動物性을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 던지고, 宇宙的 知性을 갖춘 높은 차원의 새로운 人類가 탄생할 것이다. 새로운 인간(Homo novus)의 새로운 價値觀의 世界支配權에 다른 길이 없다. 人類의 運命은 生死의 岐路에 섰다. 大學과 그 敎育은 바로 이러한 眞理를 目標로 해야 한다. 이러한 대학의 본질의 빛 안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대학의 學問理論과 그 現實의 問題性이 무엇인가는 스스로 自明해지는 것이다. ▣